

다산포럼



성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삼재령,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이 고개에서 왼쪽으로 오르면 내금강이고 오른쪽 계곡을 따라 오르면 외금강이라 한다. 반대로 향로봉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설악산이다. 그래서 서화리 주민들은 자기 동네를 설악금강마을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서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계절에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삼재령 고갯길에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천체가 열렸다.

우리 문화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익숙한 듯 낯선 전통이다. 마니산의 참성단이나 태백산 천제단이 천체가 매우 오래된 전통임을 증거하는 듯 하지만, 실은 이들이 모두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전통에 가까운 듯하다. 역사기록으로 보면, 고려 성종 2년(983)에 원구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설치와 폐지를 되풀이했다. 조선 세조 3년(1457)에 원구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7년만에 중단되었다. 중국의 간섭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제가 우리에게 낯설게 된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고종 34년(1897)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원구단을 회복했지만, 전국적으로 천제는 확산되지 못했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몇몇 의병들이 그 뜻을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가졌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서화리의 천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몇 년간 확연히 느끼게 된 기후위기는 건강한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가온 평화의 위기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또한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어느덧 금강산 관광의 추억들이 거의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되찾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리지 못했

다. 불행하게도 협의와 교류의 시간은 불신과 단절의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남북이나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1991년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도 유효한가를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른다. 우리는 평화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한반쪽 더 나가는 책임을 내지 못했고, 미국과 북한의 속내 또한 우리의 기대를 빗나갔다. 그렇게 기회를 상실하자 엄중한 시간이 도래했다. 남은 북을 다시 주적으로 삼고, 어렵게 만들어낸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며,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을 제1적대국이라고 응답하고 초음속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갈 수 밖에 없는 '정상적인' 길인가?

나는 을지 하늘길이라고 부르는 DMZ 평화의 길을 외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걸었다. 공교롭게도 몹시 강한 바람이 불었고, 공중으로 날리는 나뭇잎들이 마음을 스산하게 했지만, 평화의 기원을 담은 작은 리본들을 그물로 엮듯이 매달았다. 전방 고지에서 서화리로 돌아오는 길에 너구리가 나타났고, 또 산양도 나타났다. 궁지에 몰린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평화의 상책이요,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평화의 하책임을 왜 모르느냐는 눈빛이었다. 선거에 의해 책임자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정책 실패가 너무 중차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것일 때, 국민들은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곤 한다. 밀지 않은 장래에 그런 순간들과 마주칠 것인가. 세상이 어지럽고 방향이 모호할수록 냉철하고 진지하게 균형을 잡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홍점순 광주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위기의 자원봉사 활동, 기회로 만들려면

원봉사와는 다른 형태의 참여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심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비영리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협조를 통하여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민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원봉사센터와 기초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콘셉트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시민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모델을 다양화하고 이타성과 결과 중심으로 접근해 자원봉사의 본질을 지키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의 우려도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고령화,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수행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 충족에만 주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 기획과 추진 역량도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다소 낮은 것이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판단된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자원봉사가 포괄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자원봉사 개념과 영역도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무보수성'과 '무대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지급해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유행했던 비대면 방식을 가속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해 불린티어즘, 불린텐던트, 온라인 자원봉사, 버츄얼 불린티어와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한다.

끝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보수의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생 활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노인 중심에서 다른 연령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고



김미승 작가

느티나무를 닮은 우리 동네 큰언니들

게 들렸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말 속에 몹시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강자와 약자라는 차별이 내포된 말이란 걸. 언젠게 재산 밀천으로 둔갑할 수 있는 여자들의 운명은 역사속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심심찮게 드러나곤 했다. 가정에서 딸들은 교육의 기회를 아들들에게 양보해야 했고, 오빠를 위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결혼 후엔 육아를 위해 직장을 버려야 했다.

열 세분의 큰언니들을 인터뷰하면서 실감했다. 딸이라서 끝없이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들은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시대가 썩은 굴레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자포자기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떤 자긍심이 그녀들의 가슴에 심지처럼 박혀있는 듯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 답은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원고로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다.

70세 이상 80대 중반 연세의 열 세분의 큰언니들은 커다란 느티나무를 닮았다. 그녀들은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아왔다. 잡아줘야 할 아픈 손은 없는지, 곳은일은 외면하지 못해 참견하고, 조금 불편해도 내 공간을 나누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느라 손해와 이익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느티나무를 닮아갔다.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여자에게 그런 품을 만드는 유전자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문득 앞만 보고 달려온 키만 경중한 내 삶이 빈궁하게 느껴졌다.

처음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땐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빼던 분들이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 솔솔술술 이야기가 풀려났다. 당연했다. 그녀들의 삶이 곧 이야기였으니까. 그녀들의 돌봄의 습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아기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30년을 키워낸 큰언니, 다른 이들의 출근길이 불쾌할까 아침 일찍 나와 골목들을 청소하는 큰언니, 예쁜 꽃과 차를 나누며 동네에 향기로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큰언니, 남치는 동네 사랑을 시로 읊어내는 큰언니 등. 남을 위한 봉사를 삼시 세끼처럼 행거는 큰언니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겨운 말투와 남치는 오지랖에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지어졌다. 귀중한 체험이었다.

늦은 봄에 기획해서 무더운 여름날에 구술채록을 하고, 가을에 원고를 마무리 지었다. 정성 들여 쓴 원고가 출판이라는 옷을 입으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다. '우리 동네 큰언니'가 세상에 나온 것을 축하하기 위한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동구청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한껏 멋을 부린 '큰언니'들의 수다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社說

광주 도심 복합개발 '콤팩트시티' 주목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 금호익스프레스 상무 등이 포함된 현장 시절단이 일본을 다녀왔다. 광주시 시절단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 첨단 복합건물과 도시재생 및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방문 목적은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복합쇼핑몰 건설에 앞서 도심 복합개발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에 짓는 '더 현대'와 금호 유스퀘어터미널과 연계한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안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절이었다. 시절단은 도쿄에서 벤치마킹 모델을 찾았다. 도쿄 개발의 시작점으로서 불리는 첨단 복합건물 롯폰기힐스를 시작으로 아리아케기, 도쿄역과 터미널을 연계한 미드타운 야에스, 복합쇼핑 문화시설인 아자부다아일랜드에서 '직주락(職住樂)' 기능을 집약한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 해법을 찾았다. 직주락은 LPW(Living·Playing·Working)를 함축한

말로, 거주하는 곳에서 일하고 쇼핑과 문화생활을 한꺼번에 즐기는 개념이다. 일명 15분 거리 생활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콤팩트시티'를 의미한다.

도쿄는 쇠락하던 도심에 첨단 복합건물로 개발하면서 각 시설들을 잘 연결해 콤팩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건설을 앞두고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개발 추진에 기업 관계자들과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방·일신방직 터와 광주신세계가 근접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콤팩트시티를 구성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란 측면에서도 반길 일이다. 다만 민간 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발 계획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콤팩트시티를 구상한 만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섬세한 손짓으로 최고의 화음을 내도록 조율하는 노련한 행정이 절실하다. 관심있게 지켜 볼 일이다.

세수 비상 광주, 안일행정에 혈세 낭비라니

역대급 재정난으로 예산절감에 나선 광주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 수천만 원을 낭비하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서구 화정 근린공원 인근에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를 아우른 합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조치로 합동청사 신설부지 8359㎡ 가운데 전남도 소유인 4183㎡를 사들이기 위해 2022년 10월 전남도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맺었다. 3년에 걸쳐 부지대금 117억 원을 지불하되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금을 3년 동안 분납하고 3.40%의 분납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시는 계약 조건에 따라 2022년에 10억 원, 2023년에 66억 원을 분납했고 오는 31일 42억 5928만 원(원금 41억 1900만 원, 이자 1억 4000만 원)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예산에 합동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아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됐다. 공여 지적으로 전남도의 양해를 얻어 납기일

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6월 30일까지 늦었으나 납기일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이자 5835만 원은 내야할 처지다. 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동청사 부지매입비 예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63억 원의 예산을 요청받았으나, 예산안에는 합동청사 설계역비 명목으로 18억 2874만 원만 반영했다. 결국 어슬픈 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재정이 어려워진 탓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예산절감에 나서야 할 지자체가 정작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혈세 수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 오류나 실수로 인한 재정 누수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5개 자치구도 유사한 '혈세 낭비'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無等鼓

18세기 조선 정조때 흑산도 주민들은 지역(紙役)으로 곤혹을 치렀다. 남자는 8세부터 40세까지 탁나무 1만 2900근(50냥 가격)을 양향청(糧餉廳)에 바쳐야 했다. '탁나무 세금'이다. 그렇지만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 척박한 외딴섬에 탁 나무 세금을 떠단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김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삼문화답사기' 신안 편(2012년)에서 한양까지 올라가 격쟁(擊鉦)을 울린 '흑산도 백성' 김이수를 소개한다. 그는 '1791년 정조 임금이 격쟁을 가로 막고 격쟁을 울렸다. 격쟁은 임금의 행차할 때 징이나 팽과리를 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켜 백성들이 직접 민원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당시 흑산도 주민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폐단은 '탁나무 세금'이었다. 수차례 관청이나 상부에 소송을 내도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양까지 올라가 직접 호소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격쟁을 검색하면 210여 건의 기사가 뜬다.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을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등 법률로

네 가지만 정했다. 하지만 사노(私奴)가 군복으로 변장하고 칼을 찬 채 궁궐에 들어와 격쟁을 하는 등 무리한 격쟁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다. 명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백성이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적에 격쟁하여 호소연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억지로 격쟁한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요사이 백성의 원망이 많이 쌓여 격쟁하는 일이 습관화되었으니, 나는 몹시 탄탄스럽다."(명종 14년 4월 9일)

최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생식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금을 행차할 때 징이나 팽과리를 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켜 백성들이 직접 민원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당시 흑산도 주민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폐단은 '탁나무 세금'이었다. 수차례 관청이나 상부에 소송을 내도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양까지 올라가 직접 호소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격쟁을 검색하면 210여 건의 기사가 뜬다.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을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등 법률로

/송기동 예행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담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